

■ ‘국제노인의료 심포지엄’ 주최 나카무라 테츠야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이사장

“부산 고령화 급속 진행, 노인의료산업계 관심 집중”

27일 부산 해운대 벅스코(BEXCO)에서는 ‘2013 국제노인의료 심포지엄’이 개막돼 3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뉴 노멀시대, 노인의료를 새롭게 디자인하라’라는 주제로 일본, 중국, 싱가포르, 미국 등 6개국에서 600여 명의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가가 참가한 이번 심포지엄은 2011년부터 부산에서만 3회 연속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심포지엄 주최자인 아시아만성기의료협회

2011년부터 부산서 3회 연속 개최

“만성기 질환자 퇴원 후에도
의료진 재택 진료 시스템 필요”

나카무라 테츠야 이사장은 27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부산은 고령화 속도가 아주 빨라 노인 의료산업 종사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현장”이라며 3년 연속 부산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유를 설명했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이번까지 부산에 세 번 왔다”면서 “우수한 숙박·회의시설이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대한 회원들의 찬사가 이어져 앞으로도 부산에서 계속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이번 심포지엄은 일본 관계자들이 대거 참가하는 등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국가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먼저 고령화시대를 거친 일본의 경험을 공유해 노인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기회가기 때문이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일본은 십수 년 전부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노인 의료와 복지에 관해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많은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의 노인의료 시스템에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게 그의 지적이다. 개별 의료현장의 다양한 요구들이 수용되기보다 관료들의 편의 위주로 정책이 추진되다보니 환자의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경제적 환경과 개인적 욕구가 다른 환자들에게도 평균적인 서비스만 제공돼 현장 의료진과 환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노인의료 시스템에 대한 조연도 아끼지 않았다. 지역의 각급 의료기관들과 재택 의료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나카무라 이사장은 “개업의사에서부터 종합병원에 이르기까지 지역 내 의료기관들이 연계된 포괄적 서비스를 개발하는 한편 재택 의료환경과의 연결고리도 만들어야 된다”면서 “만성기 질환을 가진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도 간호사나 의사가 왕진해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은 부산국제실버엑스포와 동시 개최를 통해 의료현장의 의료기기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는 한편 현재 개발되고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를 소개해 국제적인 판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진국 기자 gook72@busan.com

사진=김병집 기자 bk@